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Reading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이 종 문 (Jongmoon Le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웹 검색엔진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2013년-2015년까지 운영한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 350개를 표집하여 분석한 결과, 독서프로그램 관련 보도가 수도권(41.4%)은 높은 반면 여타 지역은 낮았다. 둘째, 순수 독서프로그램이 69.9%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으나, 여타의 프로그램이 상당 수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독서프로그램 참가대상 중 초등학생과 유아 및 부모가 51.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반면, 소외 계층은 9.0%로 낮았다. 넷째, 독서프로그램 운영기간이 28.4%(86개)가 1일로 파악될 만큼 단기 프로그램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독서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팀 또는 전담인력을 도서관이 운영하여 언론과 소통할 것과, 지역 주민의 계층별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 주민 계층별로 전체 주민을 균형 있게 아우르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reading program of public libraries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this analysis, I sampled and examined 350 news articles to reading programs done in the public libraries between 2013 and 2015. The result shows that 41.4% of the collected articles were the news about the reading program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While the articles about simple reading programs occupied 69.9%, the mixed activity programs reached a significant amount in total. In addition, 51.3% of program participants was under the elementary children and their parents, but only 9.0% program participants came from low socioeconomic status classes. 86 reading programs (28.4%) were designed for one-day events without a long-term policy. Based on such analyses, this study provides three suggestions: utilizing public relation teams and communicating mass media to advertize reading programs to local residents, developing systematic reading programs in users' needs, managing the reading programs for all kinds of local residents.

키워드: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독서실태, 독서활동, 독서보도
Public Library, Reading Program, Actual Reading Condition, Reading Activity,
News Reporting about Reading

-
-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주관 2016학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mlee@ks.ac.kr)
논문접수일자 : 2016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6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6월 2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81-94,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081]

1. 서론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도서관법 제2조의 4항) 설립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이 같은 공공도서관은 법률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상의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으나, 공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공익시설인 탓에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중(public)을 여러 지역에 비조직적으로 존재하는 주민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때, 일정한 지역을 서비스 영역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관할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적 서비스·문화적 서비스·독서활동서비스·평생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도서관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을 의무화(제27조의 ①)”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업무에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이유(제28조의 3항, 4항)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공공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법적 의무가 있는 조직체가 첫째, 서비스 인구 등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과 설비, 인적자원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설치된 공공도서관이 목적하는 도서관활동을 전개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을 적정한 수준에서 투입해야 한다. 셋째, 목적하는 도서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되어 지역사회 주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도서관법(2011년 기준)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수의 사서를 배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1관 당 전문가(사서) 배치 수는 평균 8.4명에 머물고 있다(안인자 외 2013, 12).” 예산 역시 부족하여 인적자원과 서비스프로그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이런 문제 등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지역 간 편차 또한 크다. 그럼에도 그간의 독서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독서프로그램 그 자체에 머물고 있고, 개선의 기초가 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이 서비스 관할 지역 주민에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도록 돕는데 있고, 그 이용의 방법론이 독서활동 즉 독서의 방법론이라고 전제할 때, 또 그런 메커니즘이 체계화되어야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센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전제할 때, 독서활동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포털 등에서 검색된 언론 및 통신사의 독서 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 구글 등 웹 검색엔진에서 식별된 언론사 및 통신사의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① 독서프로그램 운영 현황, ② 독서프로그램 유형, ③ 독서프로그램 내용, ④ 독서프로그램 참가대상, ⑤ 독서프로그램 참여

인원, ⑥ 독서프로그램 운영기간, ⑦ 독서프로그램 보도 언론사(통신사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공도서관과 독서진흥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도서관법 제1조)”하는 시설 또는 그런 조직체임을 명시하고, 그 목적을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도서관법 제2조의 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도서관법은 제14조의 ①항에서 제12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독서관련 정책을 포함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와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제28조의 제3항에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할 것을, 제4항에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주최 또는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은 제5조의 ①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

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②항에서 기본 계획에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등 독서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을 근거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실시하였고, 현재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진행하고 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독서와 관련한 추진방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① 임산부: 독서태교프로그램 운영, ② 영유아: 시설확충 및 독서입문프로그램보급, ③ 어린이: 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④ 청소년: 정보 활용 교육 및 직업진로정보 제공, ⑤ 청·장년: 취업·창업정보서비스 및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운영, ⑥ 노년층: 건강 등 관심분야 장서 및 정보서비스 개발·제공 등이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8100호)을 근거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년-2013년)을 실시하였고, 현재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실시 중에 있다. 도서관 등 독서 인프라를 활용하여 ① 사회적 독서 진흥기반 조성, ②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③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④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를 확산시켜

〈책으로 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독서율과 달리 1년 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이 100명 중 65명에 불과할 정도로 성인 독서율이 낮다. 지난 1년 동안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성인이 28.2%에 불과할 정도로 성인의 도서관 이용률도 낮다. 독서프로그램 참여율은 서울 4.3%, 부산 1.7%, 대구 2.9%, 인천 3.6%, 광주 0.0%, 대전 7.7%, 울산 2.9%, 경기 3.2%, 강원 4.4%, 충북 1.1%, 충남 0.5%, 전북 1.7%, 전남 0.0%, 경북 2.7%, 경남 0.8%, 제주 4.5%로 전국 평균이 2.9%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에 의하면(김은하, 이태문 2015, 30-31),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 OECD 평균은 20.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4%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내일신문(2016.3.2)이 동 연구를 정리한 것을 보면 〈표 1〉과 같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 지자체별 주요 독서지표 현황을 조사한 것과 〈2009 도서관평가자료(2009-2010년) 도서관별 수합〉을 통해 독서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것(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5-26)을 보면, 독서프로그램 참여율이 전체 평균은 2.9%로 나타날 정도로 낮다. 지역별로는 대전 7.7%, 제주 4.5%, 강

원 4.4%, 서울 4.3%, 인천 3.6%, 경기 3.2%, 대구와 울산이 각각 2.9%, 경북 2.7%, 부산과 전북이 각각 1.7%, 충북 1.1%, 경남 0.8%, 충남 0.5%, 광주와 전남이 각각 0.0% 순으로 나타날 정도로 특정 지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의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은 4,936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독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물론 독서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전체의 45.5%[서울 945개(19.1%), 경기 1,305개(26.4%)]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과 지역 간 편차는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서프로그램의 성격은 전체 4,936개 중에서 독서교육 63.0%(3,108개), 독서행사 19.8%(977개), 독서동아리 6.7%(332개), 기타 6.4%(314개), 도서대출 서비스 3.1%(151개), 독서운동 1.1%(54개) 순으로 나타나 독서교육과 독서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 참조).

이처럼,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에서 독서를 진흥할 것과 이를 공공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런 토대에서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이 5년 주기로 계획·실행되고 있으나, 현실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4,936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독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참여율이 낮고 지역 간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갖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와 해외 독서율 비교

구분	전혀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몇 번	매일
한국	26.6%	23.1%	26.2%	16.7%	8.4%
OECD 평균	23.5%	22.1%	14.3%	19.9%	20.2%

〈표 2〉 지역별 독서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독서 프로그램의 성격별 분류(2009년)

지역별 독서프로그램 운영현황(2009년)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의 성격별 분류(2009년)		
지역	빈도(건)	비율(%)	프로그램성격	빈도(건)	비율(%)
서울	945	19.1	독서교육	3,108	63.0
부산	363	7.4			
대구	363	7.4			
대전	99	2.0	독서동아리	332	6.7
광주	78	1.6			
울산	123	2.5	독서운동(독서생활화)	54	1.1
인천	209	4.2			
경남	450	9.1	독서행사	977	19.8
경북	241	4.9			
충남	123	2.5	도서대출 서비스	151	3.1
충북	104	2.1			
전남	205	4.2	기타	314	6.4
전북	128	2.6			
강원	121	2.5	합계	3,440	69.7
경기	1305	26.4			
제주	79	1.6			
합계	4,936	100.0			

2.2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지역 도서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는 그간 지역에서의 역할론을 기초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실태 분석 등에 집중되었고,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그간의 연구도 전체 공공도서관 대상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보다는 특정 지역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실태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 광

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2010년을 기간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단체 지원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학교, 도서관(전국 641개 도서관 중 444개 도서관), 독서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프로그램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도서관 등 독서단체들이 수행하는 독서프로그램[독서문화프로그램 현황분석(주체별, 대상별, 내용별) 등]과 관련 동아리활동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민독서진흥 사업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한상수(2010)는 충청남도 지역 46개 공공도서관 전수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프로그램 현황과 그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획일성과 일회

성을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송화(2013)는 민간위탁 등으로 비롯된 도서관 운영방식 변화가 독서프로그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 운영의 변화가 전문성은 물론 독서프로그램에도 그 질이 저하되는 등 이용자들의 유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수희(2010)는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어학, 독서관련, 생활문화, 컴퓨터, 향토문화 강좌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프로그램이 생활문화 강좌(72.4%)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독서 강좌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독서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방향이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 독서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관계로 여타의 선행연구는 생략한다.

3.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3.1 조사내용 및 기준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① 독서프로그램 운영 현황, ② 독서프로그램 유형, ③ 독서프로그램 내용, ④ 독서프로그램 참가대상, ⑤ 독서프로그램 참여인원, ⑥ 독서프로그램 운영기간, ⑦ 독서프로그램 보도 언론사(통

신사 포함) 등이다. 조사기준은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도서,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 독서행사 등을 키워드로 검색된 언론사 및 통신사들이 보도한 기사 중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 검색 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선행 조사를 통해 독서프로그램의 언론 및 통신사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상당수의 독서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 언론사 및 통신사에 노출되는 기사가 1차로 도서관의 홍보활동과 기자의 취재활동 등에 의해 언론사 및 통신사에 노출되고, 2차로 언론사 및 통신사의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기사로 선택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검색된 전체 기사 중 독서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언론 및 통신사들의 인터넷 기사 35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5년 10월 1일-11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독서관련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350건이며(2013년 120개, 2014년 120개, 2015년 110개) 전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표 3〉 참조).

〈표 3〉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집 기사 수

구분	기사 수
2013년	120
2014년	120
2015년	110
계	350

3.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집된 350개 기사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지역별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 22.0%(77개), 서울 11.1%(39개), 제주 8.9%(31개), 충북 8.6%(30개), 인천 8.3%(29개), 경남 7.7%(27개), 충남 6.6%(23개), 전북 4.3%(15개), 전남 4.0%(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공공도서관

의 보도기사가 전체의 41.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반면 제주, 충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기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검색된 공공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사 비율이 986개 도서관의 35.5%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는 39개 도서관의 26.5%가, 광역자치단체는 181개 도서관의 36.5%가, 도(道) 단위 자치단체는 663개 도서관의 31.4%가, 특별시도자치단체는 25개 도서관의 148%로 분석되고 있다. 특별시도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표 4> 독서프로그램의 관련 기사의 지역별 현황(2013년-2015년 11월)

구분		기사 수	비율
특별시	서울특별시 (147)	39	11.1[26.5]
광역자치단체	인천광역시(47)	29	8.3[61.7]
	대전광역시(24)	13	3.7[54.2]
	부산광역시(37)	5	1.4[13.5]
	울산광역시(17)	4	1.1[23.5]
	대구광역시(35)	7	2.0[20.0]
	광주광역시(21)	8	2.3[38.1]
도(道) 단위 자치단체	경기도(229)	77	22.0[33.6]
	강원도(53)	10	2.9[18.9]
	충청남도(58)	23	6.6[39.7]
	충청북도(43)	30	8.6[69.8]
	경상남도(65)	27	7.7[41.5]
	경상북도(65)	12	3.4[18.5]
	전라남도(64)	14	4.0[21.9]
	전라북도(56)	15	4.3[26.8]
특별시도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4)	6	1.7[150]
	제주특별자치도(21)	31	8.9[147.6]
계	(986)	350	100.0[35.5]

* ()는 2016년 6월 8일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검색한 공공도서관(일반, 어린이) 숫자임

* []는 공공도서관 수에서 기사 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분석해보면, 기사 비율이 수도권은 전체 도서관의 34.3%(서울 26.5%, 인천 61.7%, 경기 33.6%)를, 비수도권은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세부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의 내용을 복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독서/독서문화프로그램 32.1%(142개), 독서교육프로그램

26.93%(119개), 일반 문화/체험프로그램 15.2%(67개), 일반 학습/예술프로그램 14.9%(66개), 책 문화/도서관문화프로그램 9.3%(41개),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1.6%(7개)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의 60.6%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으나, 독서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여타의 프로그램도 상당 비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을 내용별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독서 프로그램 내용을

<표 5>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복수조사)

구분	기사 수	비율
책 문화/ 도서관문화프로그램	41	9.3
독서교육프로그램	119	26.9
독서/독서문화프로그램	142	32.1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7	1.6
일반 학습/예술프로그램	66	14.9
일반 문화/체험프로그램	67	15.2
계	442	100

<표 6>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내용

(복수조사)

구분	기사 수	비율	
책 문화/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책 문화 관련 프로그램	35	7.9
	도서관문화 관련 프로그램	6	1.4
독서교육프로그램	독서교육프로그램	108	24.5
	독서지도 부모교육	11	2.5
독서/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활동프로그램	63	14.2
	인문독서프로그램	43	9.7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36	8.1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7	1.6	
일반 학습/ 예술프로그램	학습 관련 프로그램	32	7.2
	예술 관련 프로그램	34	7.7
일반 문화/ 체험프로그램	성인 및 다문화 프로그램	21	4.8
	문화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46	10.4
계	442	100	

복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독서교육프로그램 24.5%(108개), 독서활동프로그램 14.2%(63개), 문화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10.4%(46개), 인문독서 프로그램 9.7%(43개),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8.1%(36개), 책 문화 관련 프로그램 7.9%(35개), 예술 관련 프로그램 7.7%(34개), 학습 관련 프로그램 7.2%(32개), 성인 및 다문화 프로그램 4.8%(21개), 독서지도 부모교육 2.5%(11개),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1.6%(7개), 도서관 문화 관련 프로그램 1.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도서관이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주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여타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생 32.4%(134개), 유아 및 부모 18.9%(78개), 누구나 13.8%(57개), 부모

7.0%(29개), 중학생과 독서회원이 각각 6.3%(26개), 성인 및 노인 5.1%(21개), 고등학생과 가족이 각각 2.9%(12개), 장애인 2.7%(11개), 청소년 1.2%(5개)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32.4%)과 유아 및 부모(18.9%)가 전체의 51.3%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인 및 노인(5.1%)과 장애인(2.7%), 청소년(1.2%)은 전체의 9.0%에 불과할 정도로 성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350개 기사 중에서 참여인원이 파악된 113개 기사를 통해 독서프로그램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20명 이하 30.9%(35개), 21-40명 29.2%(33개), 41-60명 10.6%(12개), 61-80명 9.7%(11개), 81-100명과 101-120명이 각각 5.3%(6개), 121-140명과 141-160명 그리고 180명 이상이 각각 2.7%(3명), 161-180명 0.9%(1개)로 나

<표 7>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참가대상

(복수조사)

구분	기사 수	비율
유아 및 부모	78	18.9
초등학교생	134	32.4
중학생	26	6.3
고등학생	12	2.9
청소년	5	1.2
장애인	11	2.7
독서회원	26	6.3
누구나	57	13.8
성인 및 노인	21	5.1
가족	12	2.9
부모	29	7.0
기타 무응답	2	0.5
계	413	100.0

〈표 8〉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참여인원

구분	기사 수	비율
20명 이하	35	30.9
21 - 40명	33	29.2
41 - 60명	12	10.6
61 - 80명	11	9.7
81 - 100명	6	5.3
101 - 120명	6	5.3
121 - 140명	3	2.7
141 - 160명	3	2.7
161 - 180명	1	0.9
180명 이상	3	2.7
계	113	100.0

타났다. 전체적으로 40명 이하가 60.1%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40명 이하의 참가인원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350개 기사 중에서 운영기간이 파악된 303개 기사를 통해 독서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공공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분석한 결과, 1일-7일 49.2%(149개), 29일 이상 32.0%(97개), 8일-14일 9.2%(28개), 15일-21일 5.6%(17개), 22일-28일 4.0%(12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일-7일(49.2%)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기사를 분

석한 결과 전체의 28.4%(86개)가 1일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 및 통신사 현황을 본사 소재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보도한 언론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 58.8%(206개), 충북 8.9%(31개), 제주 7.1%(25개), 경남 6.0%(21개), 인천 5.7%(20개), 대전 4.0%(14개), 대구 1.7%(6개), 광주와 경기 각각 1.4%(5개), 경북 1.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

〈표 9〉 공공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기간

구분	기사 수	비율
1일 - 7일	149	49.2
8일 - 14일	28	9.2
15일 - 21일	17	5.6
22일 - 28일	12	4.0
29일 이상	97	32.0
계	303	100.0

* 운영 기간이 1일인 독서프로그램: 86개(28.4%)

〈표 10〉 본사 소재지 기준,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보도 현황

구분	기사 수	비율
서울(1,665)	206	58.8
인천(102)	20	5.7
대전(74)	14	4.0
대구(62)	6	1.7
부산(81)	2	0.6
울산(33)	3	0.9
광주(98)	5	1.4
강원(71)	3	0.9
경기(604)	5	1.4
충남(123)	2	0.6
충북(79)	31	8.9
경남(146)	21	6.0
경북(218)	4	1.1
전북(82)	3	0.9
제주(40)	25	7.1
계	350	100.0

* ()는 2016년 2월 24일 현재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신문산업 지역별 사업체 수(전국종합일간, 전국종합 일간II, 지역 종합일간, 경제 일간, 스포츠 일간, 외국어 일간, 기타 전문일간, 무료일간, 전국 종합주간, 지역 종합주간, 전문주간, 인터넷 종합신문, 인터넷 지역신문, 인터넷 전문신문)

기가 65.9%로 나타날 정도로 수도권은 높은 반면, 여타지역은 충북, 제주 등 일부를 제외하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소재 언론 및 통신사가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첫째, 지역 판 보도기사를 본사 소재지로 카운팅한 점, 둘째, 국가통계포털의 신문 산업 지역별 통계에서 보듯 대부분의 언론사(통신사도 유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점, 셋째, 언론사 지역별 수와 기사 수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로 파악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

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구글 등 웹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 350건을 표집하여 기사 내용을 통해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여타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11.1%), 경기(22.0%), 인천(8.3%)]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사가 전체의 41.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반면 지역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독서프로그램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986개 도서관의 35.5%가 기사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특별시도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전체 도서관의 34.3%가, 비수도권은 31.2%가 기사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의 60.6%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으나, 독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여타의 프로그램도 상당 비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참가대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32.4%)과 유아 및 부모(18.9%)가 전체의 51.3%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인 및 노인(5.1%)과 장애인(2.7%), 청소년(1.2%)은 전체의 9.0%에 불과할 정도로 성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40명 이하가 60.1%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40명 이하의 참가인원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분석한 결과, 1일-7일 49.2%, 29일 이상 32.0%, 8일-14일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전체의 28.4%(86개)가 1일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여섯째, 보도 언론사 및 통신사를 소재지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가 65.9%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은 높은 반면, 여타지역은 충북, 제주 등을 제외한 지역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면, 첫째, 전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사 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 지역별로는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

고 있다. 언론 및 통신사가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둘째, 전체 프로그램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독서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술프로그램이나 여타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고의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프로그램 중 51.3%를 초등학생과 유아 및 부모가 차지하는 반면 성인 및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 전체의 9.0%에 불과할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한 것은 문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의 경우 전체의 28.4%가 1일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회성 독서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공공도서관이 자관이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및 통신사의 보도와 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홍보팀 또는 전담인력을 두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보도 자료를 기획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독서프로그램이 그 본래의 정체성에 집중하지 않고 여타의 프로그램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들이는 경우 본질적 목적을 이루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계층별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독서프로그램 그 본질에 충실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독서프로그램이 수월성 등을 이유로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여타의 계층에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계층별로 균형 있게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수희. 2010.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은하, 이태문. 2015. 『2015년도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세종: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안인자 외. 2013. 『취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채송화. 2013.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독서단체 등의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한상수. 2010.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실태분석: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도서관통계 [online]. [cited 2016.6.8].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jsessionid=AP0oC66L6bke3NVYRBpo5E9hdMFtTkLFwFTDiyCd5WNmhjyLQc7JG7TTOyw06FOS.libstat_servlet_engine1>.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신문산업 [online]. [cited 2016.2.24].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 『내일신문』. 2016. 우리나라와 OECD 국가 독서실태·정책 비교 ①: 우리나라 ‘습관적 독자’ 가장 적다. 3월 2일 [online]. [cited 2016.3.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7329>.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발표 [online]. [cited 2016.2.7].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88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et al. 2013. *Employment Survey Special Committee Final Report*. Seoul: KLA.
- Chai, Songwha. 2013. *The case study of operating reading education programs at public libraries*. M.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t

- of Reading Education.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s for Library in Korea (2014-2018)*. Sejong: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Gim, Eunha and Taemun Lee. 2015. *Reading Status of the 2015 major foreign policy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Case Stud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Han, Sang Soo. 2010. *An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Reading Programs - in Chungnam Province*. M.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Dept of Reading Education.
- Kim, Su-Hee. 2010.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of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y in Jeju Area*.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Hansung University,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0. *Survey programs and activities, such as reading groups*.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newspaper industry [online]. [cited 2016.2.24].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mepage. *2015 National Reading Survey results released* [online]. [cited 2016.2.7].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885>.
- Naeil Newspapers. 2016. *Korea and OECD countries, reading status and policy comparison ①: Korea 'habitual readers' smallest*. March 2 [online]. [cited 2016.3.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7329>.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library statistic [online]. [cited 2016.6.8].
<http://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jsessionid=AP0oC66L6bke3NVYRBpo5E9hdMFtTkLFwFTDiycd5WNmhjyLQc7JG7TTOyw06FOS.libstat_servlet_engine1>.